

HYUNDAI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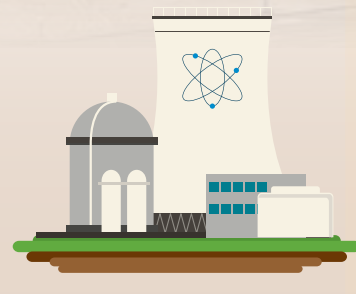
TODAY

현대건설이 UAE 바라카 지역에 시공 중인 대한민국 첫 해외 원전수출 프로젝트 바라카 원전 전경



현대건설, 국내 최강자 넘어 글로벌 원전시장을 품다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형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 현대건설은 5월 24일 중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운영준 사장과 데이비드 더함(David Durham) 웨스팅하우스 에너지 시스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AP1000' 모델의 글로벌 시장 공동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은 ▶차세대 원전 사업의 상호 독점적 협력 및 EPC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 확보 ▶친환경, 無탄소 사업 영역 확장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등 미래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 체계(Supply Chain)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설립된 미국 원자력 회사로, 전 세계 50% 이상의 원자력발전소에 원자로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한 글로벌 톱티어(Top-Tier) 기업이다. 현대건설과는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을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 한미 최고 원전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p>1970년 고리 원자력 1-4호기 주설비공사 대한민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에 참여하며 원전 시공에 발을 들인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하며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 고리 3·4호기에서는 단독시공을 담당하며 국내 원전 건설 최강자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p> 	<p>2009년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랑스·미국·일본 등 유수의 건설사와의 경쟁을 뚫고 수주한 첫 해외 원전. 특이 원전 모델인 'APR1400'은 현대건설이 신고리 3·4호기에 시공한 한국형 경수 원자로 신모델로, 3세대 원전 중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았다.</p> 	<p>2021년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사업협력 현대건설은 지난해 미국 홀텍인터내셔널과 SMR(Small Modular Reactor)사업협력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만들었다. SMR은 발전 용량을 줄이고 설계와 건설 방식을 간소화에 핵폐기물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p> 	<p>2022년 한전원자력연료와 포괄적 MOU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한전원자력연료와 '원전예체 및 사용후핵연료 사업 동반 진출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 원전예체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 및 중간저장 시설 ▶원자력연료 건전성 평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상호 협력과 동반진출을 협의했다.</p> 
--	---	---	---

Our company wins urban renewal projects in succession

The first THE H to be built in Korea’s sixth-largest metropolis

Hyundai E&C’s cumulative orders for domestic urban renewal projects are expected to hit five trillion won as our company won a 1.7-trillion-won redevelopment project to be conducted in Gwangcheon-dong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is remarkable figure is close to the amount of orders received during the previous year which reached all-time high.

er than the amount of orders received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The Gwangcheon-dong redevelopment project, considered one of the biggest redevelopment projects in the country’s sixth-largest city, is designed to construct an apartment complex consisting of two basement levels and 33 floors above ground and community facilities for residents. The name of the new apartment complex was suggested as THE H LUCEDOR. “Luce” and “dor” mean “light” in Italian and “gold” in French, respectively, signifying the intention of our company to build a so-called



golden landmark in Gwangju nicknamed “the city of light.” Our company will join hands

with SMDP, a US-based innovative design studio, to build the apartment complex of a global standard. In

addition, Gwangcheon-dong has an easy access to main roads and transportation.

도시정비사업, 거침없는 수주 행보... 1조7660억원 규모 ‘광주 광천동 재개발’ 공사 따내

광주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 적용... 3년 연속 최대 실적 갱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리 회사가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며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1조7660억원 규모의 메르드급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 가까운 수주고를 쌓았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해를 육박하는 경이로운 성과다.

사현대 리모델링 ▶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 ▶ 광주 광천동 재개발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5개월 만에 누적 수주액 4조958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019억원의 수주액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광주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25만4466㎡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5006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다. 우리 회사는 광주광역시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고, ‘디에이치 루체도르(THE H LUCEDOR)’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빛을 뜻하는 ‘루체(LUCE)’와 황금빛을 의미하는 ‘도르(D’OR)’를 더해 빛고을 광주의 금빛 랜드마크가 될 명품 단지를 조성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가 위치한 광천동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고, 무진대로, 죽봉대로 및 서광주IC에서 호남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 전국으로

의 이동이 편리하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건축·설계회사 SMDP와 손잡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단지를 꾸밀 예정이다. 무등산 계곡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60m 길이의 웅장한 게이트와 광주천, 무등산 소나무, 햇빛 등 광주의 역사·자연을 형상화한 5가지 타입의 외관 디자인으로 세련된 건축미와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 밖

에 도심 경관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브릿지 2개소, 스카이 커뮤니티 3개소, 루프탑 가든 9개소 등

을 조성해 조망 프리미엄을 극대화한다. 또한 축구장 5.7배 크기의 초대형 녹지 공간과 7개의 테마공원으로 이뤄진 2km의 프리미엄 산책로 등 다채로운 공간도 들어선다.

회사 관계자는 “내실 있는 수주에 초점을 맞춰 전국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사업지를 고려하면 ‘6조 클럽’ 가입을 넘어 3년 연속 최대 실적 갱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ur company to release the industry’s first NFTs

Commemorative NFTs issued on May 25

Our company will release a total of 750 NFTs (non-fungible tokens) to celebrate our 75th anniversary and donate the proceeds to charity with the aim to the development of our community.

a unique identifier to track ownership of digital asset by using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impossible to duplicate.

Our company attracted interest from our employees by revealing a teaser image at hdec.metatoydragonz.io on May 23. Information on minting process of the commemorative NFTs can be checked at the website in the late

afternoon on May 25. Our company is the first domestic construction company that has entered the NFT marketplace. Our company is planning to help create the NFT and metaverse ecology as well as seek a variety of ways to offer new experience to our customers. Benefits will be offered to the commemorative NFTs holders according to a roadmap to be unveiled later.



국내 건설사 최초 ‘창립 75주년 NFT’ 발행... 새로운 시장에 도전장 내며 창립정신을 잇다

5월 25일, 750개 기념 NFT 발행... 수익금 기부로 나눔경영 실천

우리 회사가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발행하고,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

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디지털 자산의 원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다. 우리 회사는 5월 23일 현대건설 NFT 전용 홈페이지(hdec.metatoydragonz.io)에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임직원의 호기심을 유발했다. 창립 기념 NFT와 관련된 민팅(minting-NFT 발행) 정보는 25

일 늦은 오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한 수 있다. 창립기념 NFT 홀더(보유 고객)들에게는 추후 발표 예정인 로드맵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NFT 발행은 5월 10일 샌드박스네트워크와 ‘NFT-메타버스 분야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만큼 창립 75주년 기념 NFT 발행이 신규 영역 진출

성고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NFT 사업에 뛰어들 우리 회사는 향후 MOU를 기반으로 NFT-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NFT가 메타버스 산업의 핵심 키워드”에 이어 올해 레드닷 어워드(레드닷 어워드)에서도

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판매 수익은 이웃사랑 실천에 활용하는 등 나눔경영 실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이번 NFT 발행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UAM 버티포트 등 새로운 시장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며 창립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Our company picked as preferred bidder for Busan Eco Delta Smart City

Securing growth engine through smart city construction

Our company has set out to enhance our key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a new business for smart city construction aimed at the establishment of future-oriented urban infrastructure.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is Korea’s biggest smart city project, which is designed to create a smart city district within Busan Eco Delta City and establish and operate smart services.

15 years.

Our company is expecting to create a new growth engine as well as gain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cutting-edge future cities by participating in building smart cities with key urban functions related to residence, commerce, transpor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ecological environment, and culture,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스마트시티’ 핵심 성장 동력 확보

LG CNS, 신한은행 등 관계사와 ‘The 인(人)컨소시엄’ 건설사로 참여... 스마트 혁신 기술 적용한 미래형 도시 모델 구현

우리 회사가 미래 첨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신사업으로 핵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사업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선도 지구를 공동 조성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컨소시엄은 ▶교통 ▶헬스케어 ▶생활혁신 ▶플랫폼-인프라 ▶에너지 등 5개 분야 총 25개의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구현하고 15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거, 상업, 교통, R&D, 생태 환경, 문화 등 주요 도시 기능이 집약된 초연결 지속성장 도시 ▶공간 효율 및 이익 편익을 극대화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입체 도시 ▶자연, 사람, 이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도입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통합운영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고도화·확장성을 고려한 스마트 서비스는 물론 국내외 환경 및 글로벌 기술 동향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Our company wins main award at iF Design Award 2022

Our company has received the main award for “THE H Gate 32-8,” a main gate of THE H La Class, at iF Design Award 2022.



Our company won the main prize for “The Clean Zone” at iF Design Award 2021 and “The Gate, Tangent” at the IDEA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21, along with “Cloud Walk” at the Red Dot Award 2022. Our company was awarded at iF Design Award two years in a row and at the world’s three prestigious awards for four consecutive

years, which is the first of its kind among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iF 디자인 어워드 2022 본상 수상...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4회 연속 선정

우리 회사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주출입 문주 ‘디에이치 게이트 32-8’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이전에 수상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주출입 문주 ‘디에이치 게이트 32-8’은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 박신기와 협업한 비정형 시설물이다. 건물 외벽에서 시작해 지상까지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공동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8m 높이에 70m 길이를 자랑한다.

이번 수상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물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다.

이번에 수상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주출입 문주 ‘디에이치 게이트 32-8’은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 박신기와 협업한 비정형 시설물이다. 건물 외벽에서 시작해 지상까지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공동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8m 높이에 70m 길이를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iF 디자인 어워드(미세먼지 저감 클린존), IDEA 디자인 어워드(미디티 게이트 타겟트)에 이어 올해 레드닷 어워드(클라우드 워크)에서도 본상을 수상한 바

지식산업센터·물류센터 등 건축 수주 이어져

우리 회사가 건축 부문에서 꾸준히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회사는 4월 15일 3382억원 규모의 ‘오산 세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86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국제 규제 축구장 32개와 맞먹는 연면적 23만㎡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다. 지하 2층~지상 10층은 제조형으로, 지상 11층~15층은 업무형으로 설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세마역에서 약 120m 거리인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경산시 진량읍 경산4산업단지 내 연면적 19만 6942㎡,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는 세마역에서 약 120m 거리인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우리 회사는 코람코경산물류PFV(㈜에 지분 29.8%를 투자해 공사가 발주한 ‘경산4산단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공사를 따냈다. 이 프로젝트는 경산복도

GROUP NEWS

Hyundai Motor shares vision for self-driving IONIQ 5-based robotaxi

Hyundai Motor Company today launched a global manifesto campaign called “Innovation Begins, from Very Human Things” to share its vision for self-driving robotaxis. Motional, the global leader in driverless technology, will work in partnership with ride-hailing services to deploy the Level 4 autonomous vehicles across major U.S. cities starting in 2023.

omous vehicle that can safely operate without a driver. To make the robotaxi a reality, Hyundai partnered with Motional, to equip the award-winning IONIQ 5 with an array of hardware and software to provide safe and secure driverless operation.

The all-electric IONIQ 5-based robotaxi (here after referred to as IONIQ 5 robotaxi), which was first unveiled at 2021 IAA Mobility to much acclaim, is an SAE Level 4 auton-

In line with Hyundai’s brand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the company’s aim for the robotaxi is to go fully autonomous while retaining a humanistic touch. This narrative is depicted through two videos of the recently launched campaign.



Good To Great 강렬하게 기억될 현대건설의 75년, 나아갈 100년



박상용 책임
원자력SMR사업팀

“탄소제로의 핵심 원자력! ‘H-SMR’이 탄생하는 날도 머지않았어요”



정재영 연구원
모빌리티인프라연구팀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모빌리티 인프라, 그 중심에 현대건설이 있어야죠”



나호준 책임
건축주택프리콘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기술인 BIM으로 디지털 건설리더를 꿈꿔요”



이상선 책임
국내신재생개발팀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의 미래, 이 분야를 리더하는 것도 우리가 될 거예요”

Q 우리 회사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재영 연구원(이하 '정') 창립 70주년인 2018년에 입사한 제가 75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하네요(웃음). 저는 그새 결혼을 해 아내가 됐습니다. 아이의 첫돌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75돌을 축하하게 돼 더욱 뜻깊어요. 멋진 모습으로 회사의 미래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고요.

박상용 책임(이하 '박') 100주년을 25년 앞두고 있구나 정말 놀라워요. 디테일을 세ट 남은 해투를 마음에 새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결실들이 대단했던 만큼, 저 역시 앞으로의 역사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선 책임(이하 '이') 찾아보니 우리 회사처럼 전통 있는 회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현대건설의 일원으로서 75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기쁘고, 100주년에도 창립기념을 즐겁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호준 책임(이하 '나') 선배들의 젊은 시절 땀방울이 현대건설의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의 노력이 빛나는 내일을 만들 것이라 생각해요. 현건인 특유의 끈끈함, 동료애가 100주년, 200주년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Q 현건인으로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 저는 기술연구소로 입사해 3년 전 건축사업부 건축주택 프리컨팀에 합류했어요. 최근에는 그간 쌓아온 BIM 기술 역량을 활용해 현장의 시공성을 사전에 검토하며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죠. 지난 10년간의 회사 생활을 돌아볼 때 2018년 미국에서 개최된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 초청받은 일이 가장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요. BIM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토데스크가 여는 이 콘퍼런스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예요. 우리 회사는 당시 'BIM 기반 초기 시공계획 플랫폼 개발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저는 회사의 세컨드 스텝으로 참여했어요. 미국 디파일, 스페셜 스텝과 같은 글로벌 톱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물론, 우리 회사가 개발한 플랫폼을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요청을 받기도 했죠.

박 제가 입사했던 2010년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인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2009년 12월 수주) 소식으로

나라 안팎이 고요했을 때예요. 원자력 전공자로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한껏 들뜨기도 했죠. 저는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와 신한울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본사 원자력SMR사업팀에 합류했어요. SMR(Small Modular Reactor)은 300MW 이하의 소형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발전용량과 설비 규모가 작지만 안전성은 더 높아진 차세대 원전을 말해요. 최근 SMR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12년 전 생각이 많이 나오. 원전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은 것 같아 설레기도 하고요.

정 모빌리티인프라연구팀 선배님들과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스마트캠퍼스 캠퍼스 실증사업'을 올 2월 무사히 마쳤어요. 스마트 모빌리티와 우리 회사가 제안한 모빌리티 복합 공간을 결합해 중주식 소재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인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었는데,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우리 회사가 진행할 거대한 스마트 시티 사업에 밑거름이 될 거란 생각이 재밌게 일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1월 교통기술사를 취득하며 현대건설 교통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확인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교통기술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선배님이 조언해 주셨는데,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이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공항부터 해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달리니 바다 위로 대형 바지선 한 척이 보이더군요. 지난 4월 착공한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현장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2011년 10월부터 10여 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공용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오랜 과정을 거쳤어요. 저 역시 국내신재생개발팀원으로서 일조했기에 한뼘의 바다 풍경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Q 네 분은 미래 핵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최전선에 있는 만큼, 회사의 진화도 체감할 것 같은데요.

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전 지구적 이슈인 만큼 우리 회사도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나 철도, 부동산에 치중돼 있던 개발사업도 다양한 분야

『100년 기업의 조건』의 저자 케빈 케네디는 “기업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과 외부 적응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 직원이 변화와 혁신에 진심을 다해야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보신문>은 창립 75주년을 맞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사우들을 만났다. 이들을 통해 그려본 현대건설의 75년, 나아갈 100년. 글=박현익 / 사진=이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덕분에.

박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할 때 컨소시엄을 이룬 다른 건설사와는 구별되는 책임감과 적극성을 보았어요. 그 저변에는 우리 회사가 50년 동안 국내 원전의 60% 이상을 시공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최고’라는 생각도 내재화돼 있고요.

정 ‘팀플레이’가 우리의 자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혀 팀 업무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동료들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경험한 팀플레이 정신이 계속 계승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 회사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업무가 자주 생겨요. 거기다 기한까지 촉박하면 팀원 모두가 매달려야 하죠. 지금까지 팀이 합심했을 때 이뤄내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 그리고 협력 같아요.

Q 2047년이면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날의 현대건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 ‘도시의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 회사는 도시 스마트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교통 서비스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모든 운송수단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진화할 거예요.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고급형 모빌리티가 UAM이 되겠죠. 현재 우리 회사의 고민은 배터리와 다른 교통 인프라를 얼마나 메끄럽게 연결시킬 것인가로 확장돼 있어요. 제가 55세가 되는 2047년이면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상용화되고도 10년이 더 지나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시설들과 스마트 모빌리티가 유기체처럼 생동하는 도시에서 우리 회사의 스마트시티&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가로서 맛있게 활동하고 싶어요.

박 이제는 마을이나 가구 단위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10MW 이하 규모의 ‘초소형 모듈 원자로(MMR:Micro Modular Reactor)’도 개발되고 있어요. 도심지와 대단위 아파트에 SMR, MMR이 있는 세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 같아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니 지구인들이 우주에 위성도시를 만들어 살더라고요. 2007년 스마트폰이 출시된 후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25년 뒤는 전혀 다른 세상일 거예요. 우주에 현대건설의 깃대를 꽂는 날이 올 수도 있죠. 미래를 상상하긴 어렵지만 시류에 빠르게 적응하며, 현대건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 전문가가 되고 싶은 바람이에요.

이 연초에 그룹 신년회를 메타버스로 했잖아요. 2047년이면 영화 <엔디 플래이어> 원처럼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없을 것 같아요. 창립 100주년에는 최고의 디지털 건설사로서, 임직원 모두가 메타버스 속 현대타운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상상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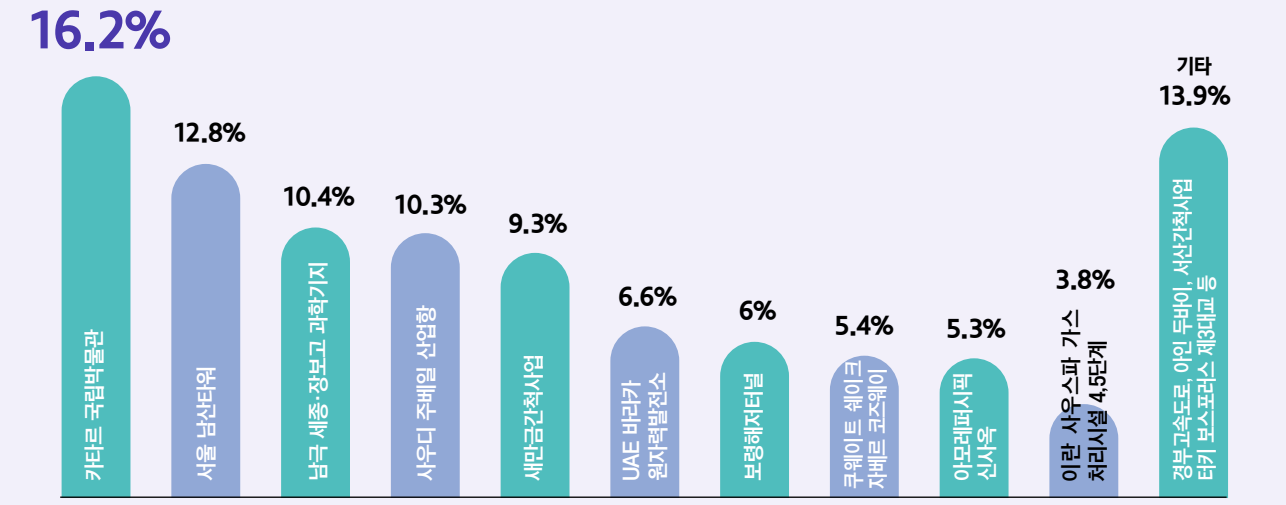
나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차량과 UAM을 타고 이동하고, 우리가 시공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건물, 디지털 인프라에서 생활하는 세상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우디의 미래형 친환경 도시 ‘네움(NEOM)’과 같은 ‘H-CITY(현대시티)’가 탄생하는 날도 곧 도래할 거라고 믿어요.

창립75주년 기념 설문조사

빛나는 내일을 만드는 어제와 오늘의 혁신

2022년 5월 25일은 현대건설이 창립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현건인은 1947년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루를 쌓아 내일을 가지 있게 만들어 왔다.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5월 11~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2071명. 높은 참여율만큼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사심을 엿볼 수 있었다.

Q 우리 회사 최고의 역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우들이 선택한 Top 9. 이하 프로젝트는 기타에 포함했습니다.

Q 우리가 간직하고 진화시켜 가야 할 ‘현대정신’은 무엇인가요?



Q 여러분이 선호하는 동료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Q 기대하는 현대건설의 #미래 #수식은?

준비하라 디지털 건설명가 H-SMR, The World Best
평가를 글로벌 토탈리 빌더, 상상 현실로 현대건설, 역시 불가능은 없었다 개인체인지
의심 NO.1 meta-constructor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 수소에너지혁신기업
의심 unlimited 중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글로벌 토탈리 빌더
의심 해저도시 창조 인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 Lifestyle Builder
의심 Total Solution Provider 변화, 혁신, 젊음
의심 #도전DNA #미래에도



1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현장 전경. 2 지난 4월 25일 현장은 케이스 227함 제작 완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3 BD(Backhoe Dredger)백호 준설선을 이용한 준설(해저면의 토사, 암석을 굴착하는) 공사. 4 TSHD(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자랑, 준설, 운반, 매립 가능한 다목적 준설선)를 이용한 매립공사. 5 지난 개항을 위한 PVD(Prefabricated Vertical Drain)인양토 저반을 압축 처리하는 가성 연직배수기 운영.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현장

현대건설의 저력으로 세계지도를 바꾼다

현장탐방 싱가포르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981년 플라우 테크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창의공학 매립공사, 테크 매립공사 2단계 등을 수행하며 변화를 이끌어 왔다. 지난해 준공한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투아스 핑거3 현장까지, 우리 회사가 확장한 싱가포르의 국토는 무려 7%에 달한다. 바다가 땅으로, 그리고 해운 물류산업의 핵심 요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현장을 찾았다. 글=이진우 / 현장리포터=김민선 매니저

싱가포르 최대 규모 케이스 227함 제작을 완료하다

싱가포르 서쪽 외곽의 투아스 지역, 준설선 수십 대의 바쁜 움직임을 따라 푸른 바다가 점차 육지로 변화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해 총 4곳의 신규 화물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 '투아스 메가포트 프로젝트'의 세 번째 프로젝트,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현장(이하 핑거3 현장)이다. 투아스 메가포트 프로젝트는 파시르 판장, 케플 등 남부 도시에 분산된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곳으로 한데 모아 운송 효율을 개선하고 도심을 개발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총 물동량 6500만TEU(1TEU=20t 화물 용량) 중 2100만TEU를 담당하는 핑거3 현장의 면적은 387ha로 여의도의 약 1.33배 규모다. 케이스 227함, 준설 2500만㎡, 매립 1억2300만㎡의 공사를 우리 회사(35%)와 일본의 펜타오션(35%), 네덜란드의 보스칼리스(30%)가 함께 수행한다. 모든 공사는 공중수행이 원칙이지만, 각 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회사별로 역량 있는 공종의 시공을 주관하고 있다. 싱가포르 내 케이스 분야에서 이미 독보적인 자리에 위치한 우리 회사

는 케이스 제작 및 설치를 리드해 수행 중이다. 케이스는 속이 빈 사각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다에 통째로 가라앉힌 후 토사나 사석으로 속을 채워 교량의 기초나 방파제, 안벽 등으로 사용한다. 1함의 크기가 12층 아파트 1개 동과 맞먹는 대형 구조물로, 바닷물에 노출되기에 시공에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 핑거3 현장에 설치하는 케이스는 무려 227함, 모두 이르면 9.1km로 에베레스트산의 높이를 가뿐히 넘는다. 2018년 3월 착공한 현장은 ▶6월 준설 및 매립 ▶8월 진입도로 건설 ▶10월 케이스 기초 조성 ▶2019년 4월 케이스 제작 ▶8월 케이스 설치 ▶2021년 8월 지반 개량 공사 등 주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정률은 58.6%로, 지난 4월 케이스 227함의 제작을 모두 완료했다. 케이스 227함은 1995년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 케이스 시장에 진출한 이래 착공일 기준 단일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미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민과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집중해 왔다.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대어 낸 아이디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현장에 실제 적용됐다. 이는 월 최대 9.5함 제작 생산성 달성, 입찰 시 산정한 공기 33개월에서 3개월을 단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독보적 기술력으로 해상공사의 입지를 견고히 하다

투아스 핑거3 현장은 벽체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유사 프로젝트 대비 40% 이상, 케이스 1함 제작 생산성은 최대 30% 이상 향상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를 두고 현장은 '현대건설의 독창적 기술이 조화롭게 실현된 결과'라고 말한다. 실제 설계에서 케이스 길이를 조정해 입찰 시 229함이었다던 케이스 제작 수량을 227함으로 줄이고, 케이스 저반의 철근을 선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정 효율을 높였다. 또한 작업자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던 콘크리트 경화도 측정에 정량적 측정 기법을 개발·도입함으로써 공기 단축은 물론 품질까지 확보해 냈다. 케이스는 제작 과정에 따라 유압 이동 장치를 통해 이동시키는데, 펌프 용량 상한으로 장치 이동 속도를 60% 이상 개선해 제작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힘을 보탤다. 임직원의 열정에서 비롯된 기술이 공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한 것은 물론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근간이 된 것이다. 특히 '실레인 자동화 도포 장비 개발' 기술은 싱가포르 건설협회에서 주최한 'Workplace Safety & Health Innovation Award 2020'에서 건설 부문 최고인 금상을, '2020 현대건설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바닷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케이스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콘크리트 표면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염화물이 스미는 것을 막는 '실레인' 도포는 필수다. 도포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는데, 케이스 최상부는 작업자가 높은 곳에 올라야 하기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곤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은 '용액의 분사 압력으로 회전하면서 도포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한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상에서 버튼을 눌러 작업할 수 있기에 고소 작업과 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한 데 더해 자동화 작업으로 일정한 품질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완벽한 공정관리로 숨가쁜 매일을 보내던 핑거3 현장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케이스 제작 공사는 현장 공중 중 거의 유일하게 인력 집약적이다. 1000여 명이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싱가포르 봉쇄 이후 5개월 이상 지속된 철저한 격리와 각종 규제도 현장 운영이 더욱 쉽지 않았다. 24시간 연

속 진행되는 케이스 제작의 특성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인력까지 부족해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이에 현장은 조과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를 적극 반영하는 등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한 것은 물론 숙련된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남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원활한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쳤기에 전혀 없는 비상 상황에도 단 한 건의 중대 재해 없이 계획했던 기간 내에 케이스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서쪽 바다의 위성지도를 보면, 바빠 움직이는 현장의 참나가 담겨 있다. 안벽이 물결을 막고, 육지가 점점 차오르는 그 중심에는 임직원의 값진 땀방울이 가득하다.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오늘, 현장은 중요한 공정을 잘 끝냈다는 기쁨도 잠시, 완벽한 공사 수행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케이스 건설 과정이 궁금해요!

케이스 건설은 크게 두 가지 공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상에서 이뤄지는 케이스 제작과 해상에서 이뤄지는 케이스 설치다. 우선 제작장에서 케이스를 제작하는데, 이 공사는 24시간 연속적으로 이뤄진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케이스 탭 타설에는 78~83시간(타입별 상이) 정도가 소요된다. 제작장에서 거대한 케이스가 완성되면 우리 회사가 보유한 2만급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를 위해 뜨는 선박 거처 설비에 실어 바다로 운반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항만 공사에 필요한 대형 해상 장비들 20대 이상 보유해 시공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 진수장에 케이스가 도착하면 플로팅 도크에 물을 채워 가라앉힌 후 예인선을 이용해 케이스를 끌어낸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7시간 이후 예인선을 정해진 위치로 이동시킨 뒤 설치 전용 바지선을 이용해 영구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Mini interview

완벽한공사 수행으로 싱가포르의 해안선을 다시 그린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필영 현장소장 1998년 입사 이후 총공 컨테이너 터미널9, 싱가포르 파시르 판장 터미널 2단계 현장 등에 근무하며 18년간 준설 및 매립 공종 경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현장엔 2018년에 부임했습니다.
- 조현진 공무팀장** 안녕하세요. 2004년 입사 이후 마창대교 현동-기포 접속도로, 창원-부산 간 고속도로, 분사 해외건설, 쿠웨이트 세이크 자베르 코트웨이 현장을 거쳐 소장님과 비슷한 시기에 현장에 부임했습니다.
- 김재홍 공사팀장** 반갑습니다. 2019년부터 현장에서 케이스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파시르 판장 현장에서 150함, 인천항 제2여객부두 터미널 현장에서 31함, 투아스 핑거3 현장에서 9함의 케이스를 제작했습니다.

- 근무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필영 소장 아무래도 '실레인 자동화 도포 장비 개발'로 싱가포르 'Workplace Safety & Health Innovation Award 2020'에서 건설 부문 금상을 수상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현대건설의 CI와 우리 현장 장비의 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희열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 김재홍 팀장** 현장 직원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케이스를 진수하는 장면을 본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코로나 팬데믹의 역경과 싸운 끝에 마침내 227번 케이스를 진수시키는 순간, 힘들었던 기억과 성취감 가득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요. 모든 직원이 합심해 일군 결과인 만큼 현대건설의 에너지를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 조현진 팀장** 저희가 현장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수 있었던 건 현장 식구들의 끈끈한 관계가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싱가포르 전체가 봉쇄돼 마트나 카페 배달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소장님이 각자 집으로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그 정성에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 부딪혔던 가장 큰 난관이 있다면?**
이필영 소장 우리 회사에서 준공한 싱가포르 해저 유류기지 공사에서 발생한 150만㎡의 암석을 모래 크기로 가공해 매립재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이상의 가공 공정이 필요해 비용 과다와 물량 손실 등의 문제가 있었죠. 이에 국내 사례를 조사해 케이스 속채움재로 모래 대신 암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김재홍 팀장**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어느 때보다 컸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와 발주처도 정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장의 전 직원이 관련 법령을 연구해 공사체계를 계획해 제출했어요. 마침내 승인이 나서 공사를 재개한 순간, 현대건설의 자력을 뽐낼 수 있었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필영 소장 바램을 마추 보고 맞으면 역풍이지만 돌아서서 맞으면 순풍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역풍이었지만, 우리 현장이 힘을 모아 이를 순풍으로 바꿔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공사 또한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현진 팀장** 성공적인 케이스 제작 완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우리 현장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 안전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함께 떠나는

짧고 굵은 48시간 싱가포르 건축여행

문화칼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과 눈길을 끄는 각양각색의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우리 회사는 1981년 ‘폴라우 테쿰 매립공사’로 싱가포르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40여 년의 시간 동안 굵직한 공사를 진행하며 탄탄하게 명성을 쌓아왔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현대건설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찾는 재미가 있다.

글: 정리=강은비 / 사진=현대건설DB·게티이미지



창이공항 → 마리나 베이

싱가포르의 관문 창이공항

동남아시아의 허브 창이공항은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하며 몇 년째 그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공항 내 볼거리가 풍족한 창이공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인공 폭포와 복합 쇼핑몰 주얼창이 등이 있어 여행객이 꼭 들러야 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 우리 회사가 시공한 2터미널은 1990년에 개항해 싱가포르 국적기인 싱가포르 항공, 스쿠트 항공, 실크 에어 등이 이착륙하고, 시내로 나갈 수 있는 MRT와도 연결돼 있다. 또한 24시간 영화 상영 및 게임 시설이 있어 환승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창이공항에서 꼭해야하는 Top 2

- 1 무료시티투어 환승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면 무료 싱가포르 투어를 신청하자!
- 2 정원 투어 터미널별 콘셉트가 다른 정원을 즐겨보자. 3터미널의 나비 정원과 4터미널의 스틸 인클로스는 필수 코스다.



창이공항 2터미널, 1990년



마리나 원, 2017년

색 있는 디자인의 건물이다. ‘거대한 손’의 손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부의 분수(Fountain of Wealth)’ 또한 관광명소로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장소다.

❗ 선택시티 기네스에도 등재되다?

컨벤션센터 공사는 당시 싱가포르 최대 철골 구조물 공사로, 초기부터 많은 이의 관심이 주목된 프로젝트다. 특히 6층의 컨벤션 홀은 내부 기둥이 없는 최대의 실내 공간을 구축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스비치 타워’ 역시 우리 회사 역작.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있다면 윤슬과 같이 눈부신 파도 형태의 캐노피가 아닐까. 저층부의 70%가량을 덮은 황금 물결의 캐노피는 빛물과 직사광선을 막을 뿐만 아니라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 필터’ 역할을 한다.

가장 오래된&화려한 건축물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술탄모스크

역사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전시품을 볼 수 있는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1887년에 건축된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건축물 중 하나다. 시청과 대법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신고전주의식 건물로, 현대적 유리 and 금속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다.

감풍 글램 지역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좁은 도로이자 그라피티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100m의 짧은 거리로 아기자기한 부티크 상점들이 모여 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술탄 모스크’가 눈앞에 나타난다. 싱가포르 최초의 술탄인 술탄 후세인샤를 위해 1824년에 건립된 곳으로 이슬람 사원 중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다. 고대 페르시아와 무어, 터키의 영향을 결합한 영국풍 인도 양식, 인도 사라센 스타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쇼퍼홀릭 필수 코스, 오차드 게이트웨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들러야 하는 오차드 로드. 이 도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차드 게이트웨이는 우리 회사가 시공한 호텔과 상가, 오피스가 있는 복합건축물로 ‘SHARP’ 및 ‘BCA 그린마크 플래티넘’을 획득한 프로젝트다. 오차드 로드를 가로지르는 기다란 유리 연결 통로가 눈에 띄는 이곳은 서머셋 MRT역과도 바로 연결돼 있어 싱가포르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좋다.

마리나베이의 시티뷰를 완성시키는 아시아 스퀘어타워, 마리나 원

낮에는 웅장함을, 저녁에는 야경의 장관을 이뤄내는 마리나베이는 전망 좋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쇼핑몰 등이 즐비하다. 사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려한 마천루 건축물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들 역시 마리나베이의 랜드마크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아시아 스퀘어타워 프로젝트 중 2011년 완공된 아시아 스퀘어타워1은 건물 실내에 기둥을 두지 않는 우주공법이 적용돼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독특한 외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마리나 원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대의 리조트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다. 단일 건축공사로는 싱가포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목을 끌었다. 유선형의 고난도 디자인이 적용된 중앙광장은 사람의 심장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으로, 건물 꼭대기까지 연속되는 루버(Louber)가 층마다 각기 다른 평면을 구현해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조형 작품 같다.

마리나베이 대표 관광지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가든스 바이더베이

꽃봉오리가 피기 직전의 형태인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은 연꽃에서 영감을 받은 이스라엘 출신 건축가 모셰 사프디(Moshe Safdie)가 설계했다. 예술과 과학의 연결 고리를

탐구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전시까지 볼 수 있어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가든스 바이더베이는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나온 세계에서 가장 큰 기둥 없는 온실과 거대한 인조나무 ‘슈퍼트리 그로브’가 유명하다. 가든스 바이더베이의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고 싶다면 슈퍼트리 사이에 연결돼 있는 스카이워크를 거닐어 보자. 조개 형태의 냉각 온실 ‘클라우드 포레스트’와 ‘플라워 돔’에는 큰 인공 폭포와 모든 대륙에서 온 각양각색의 식물들도 감상할 수 있다.



사우스비치 → 감풍 글램

→ 오차드 로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택시티와 그 명맥을 잇는 사우스비치 타워

싱가포르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사우스비치 지역에는 우리 회사가 시공한 다양한 건축물이 즐비해 있다. 그중 선택시티는 우리 회사가 1997년 건축 관련 주요 시상을 석권하며 화려하게 싱가포르에 데뷔한 프로젝트다. 45층 규모의 오피스타워 네 개와 18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 컨벤션 센터 등 총 여섯 개 건물을 잇는 포디움으로 구성된 초대형 복합단지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손처럼 보이는 특



사우스비치 복합개발, 2018년



선택시티, 1991년



오차드게이트웨이, 2014년



백점 만점에 도전? 현대건설 수학능력시험 기록편

어느덧 우리 회사가 창립 75주년을 맞았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풀기만 해도 애사심이 절로 생기는 현대건설 역사 테스트. 글·정리=박현희

성명

사원번호

OX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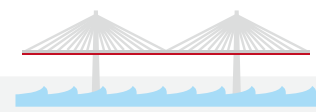
-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어 온 우리 회사의 시작은 1947년 5월 25일에 설립된 현대토건사다.
- 1985년 100억 달러 규모의 레바논 아랍수리조선소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 대한민국 건설사에 한 획을 그은 최초의 해외 공사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는 태국 현지에서 '타논 까올리'(한국 도로)라고 불린다.
-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는 USA 캘리포니아 원자력 발전소다.
- 우리 회사는 미담(未踏)의 땅인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주관식 ※QR코드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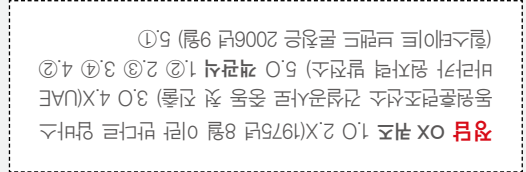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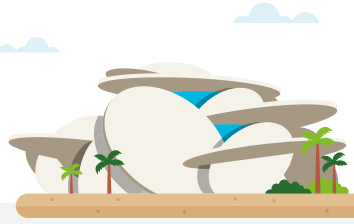
- 우리 회사는 올해로 창립 00주년을 맞았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 우리 회사가 2015년 4월 론칭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명은? (초성힌트, ㄷㅇㅇㅈ)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객관식

- 준공 시점 세계 최대 규모 알루미늄 공장으로서 연간 생산량이 180만t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① 영흥 화력 345kV 송전선 ② 사우디 마텐 알루미늄 제련소 ③ 한국비료 울산공장 ④ 인도네시아 사를라 지열발전소 ⑤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 여의도 63빌딩 높이와 맞먹는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의 이름은?
① 계동 아이 ② 런던 아이 ③ 아인 두바이 ④ 아인 카타르
- 우리 회사 '최초'와 '최대'의 기록이 아닌 것은?
① 국내 최초 단지형 아파트 '마포아파트' ②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③ 국내 최장 해저터널 '보령 해저터널' ④ 국내 최대 규모의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 다음 중 연도와 역사적 사실이 틀린 것은?
① 1970.06 - 경부고속도로 준공 ② 2000.09 - 힐스테이트 브랜드 론칭 ③ 2013.11 - 해외 수주 누계 1000억 달러 돌파 ④ 2021.03 - 창사 이래 첫 남미 페루 진출
- 건축계 거장 장 누벨이 '사막의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 건축 전 과정에 3D BIM을 도입했다.
① 카타르 국립박물관 ② 뉴욕 모마타워 ③ 아랍 세계연구소 ④ 스페인 토레 아그바 타워 ⑤ 루브르 아부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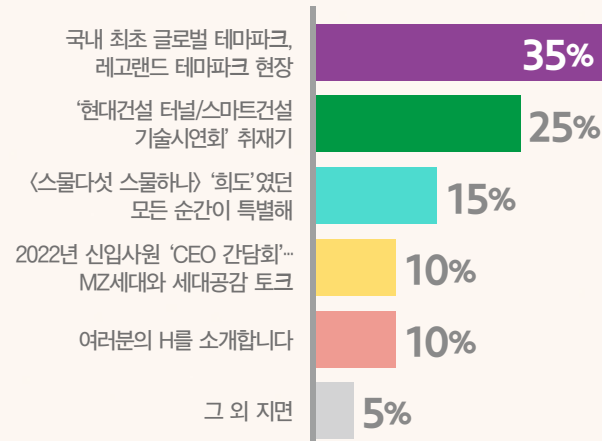


사보신문 애독자 코너

Reader's Letter

현대건설의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Q 독자의 선택! 413호 원픽 기사는?



Q 사보신문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사보에 회사 내용만 담겨 있으면 다소 딱딱할 것 같은데 화제성 높은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돼 좋았습니다. 상사와의 소통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유용했네요~

'봄꽃과 함께 찍는 인생샷'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도 기획에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현장 이야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작은 현장이라도 그 속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노고를 담아주길 희망합니다.

주관식 퀴즈 참여하기



상단 주관식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디지털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스캔
② 독자 의견 & 퀴즈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6월 17일(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디지털 세트



1 서울 종로구 북촌에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와 오설록 티하우스 북촌점을 열었다. 1930년대 한옥과 60년대 양옥이 있던 이곳을 재탄생시킨 건축가 최욱(원오원 아키텍스) 대표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서 있다. 2 최욱 대표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부분을 두고 이 건축물의 '백미'라고 표현했다. 두 집을 나누고 있었던 6m 축대의 흔적. 3 양옥 안에 자리 잡은 오설록 티하우스 북촌점의 1층 '차향의방'. 차향을 갖춰 신선한 차와 티마스터가 직접 블렌딩한 시그니처 티를 만나볼 수 있다.

‘반가사유상의방’ 그가 만든다... 서로 반히 보이는 ‘설화수의 집’

피플인사이드 최욱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학교재 갤러리 등을 설계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 상설전시관인 ‘사유상의방’을 설계해 화제가 됐다. 글=유지연 <중앙일보> 기자 / 사진=김현동 <중앙일보> 기자

“은근히 북촌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관광객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촌에 와서 서울 풍경을 보며 거닐고 차도 마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로로 50m, 세로로 50m에 3층 건물이니, 한옥과 마당, 양옥과 정원 등을 거닐면 약 500m 산책길이 되죠. 실내에 꾸민 예술문화공원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1월에 개관한 북촌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대표 매장)와 오설록 티하우스 북촌점. 일명 ‘설화수의 집’으로 불리는 이곳은 1930년대 한옥과 60년대 양옥 두 채를 터 개·보수해 만들었다. 개·보수와 인테리어 설계·디자인을 맡은 원오원 아키텍스 최욱(58) 대표는 이곳을 ‘쉼터’라고 표현했다. 주민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서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다.

한 공간에 한옥과 양옥 마주 보게 배치

약 4년 전 쯤 한옥을 사다는 아모레퍼시픽 측의 연락을 받고 최욱 대표가 직접 보고 온 이곳은 작고 어두운 느낌의 한옥이었다. 꽃집과 분식집, 옷가게 등이 들고 나며 작은 채로 쪼개져 있는 데다, 소방 도로를 만들면서 많이 잘려나간 말 그대로 불품없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최욱 대표는 “신축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서경배 회장과 이야기 끝에 그래도 동네의 유산이니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규모를 더 키워야 했다. 6m 축대로 나뉘어 보이지도 않았던 뒤편 양옥이 마침 때물로 나왔다. 운명처럼, 3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지어진 두 건물이 마주 보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공사는 처음부터 난관이었다. 일단 두 건물의 높이

차이가 컸다고 한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축대의 위용이 두 건물 사이의 거리를 가늠케 했다. 양옥의 아래층을 증축하고, 축대를 일부 허물어 한옥과 연결했다. 그 사이엔 중정을 두어 정영선 조경가의 손길을 더했다.

최욱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도 바로 이 연결 부위다. 최 대표는 “전통 한옥을 보면 채와 마당 채와 마당이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다. 채와 채가 서로 마주 보니 건너편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인다. 이런 개방감은 일본·중국과 차별화되는 우리 가옥만의 특징이다. 한옥과 양옥이 중정을 두고 마주 보는 식으로 설계한 이유”라고 했다. 연식이 다른 두 건물이 만나 의미도 더해졌다. 최 대표는 “아파트에 주로 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한옥은 물론 양옥도 잘 모른다”며 “우리나라 근대 주거사 100년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좋겠다 싶었다”고 했다.

재생 건축, 창의적 복원 있어야

최근 설화수의 집처럼 신축이 아닌 옛 건물을 살려 보수하는 재생 건축 사례가 많다. 물론 옛것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름답지 않다. 시간이 쌓은 귀한 흔적은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감을 더해야 한다.



©현대건설

최 대표는 “한옥의 본질은 목구조고, 그중에서도 바닥과 천장이라고 생각한다. 온돌이 있는 바닥과 대청이 있는 지붕은 옛것 그대로 살리고,中间的 한지 창호와 나무 창살은 필요에 의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유리를 더해 마감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설화수의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받는 느낌은 개방감이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탁 트여 사방이 시선에 잡힌다. 양옥도 기둥이나 외벽 등 주요 구조부는 거의 살렸다. 사이 사이 조명 등이나 타일 등 아름다운 옛것의 흔적도 남겼다. 오설록 티하우스 3층의 ‘바 설록’ 입구의 육중한 나무 문이나 내부 자개 장식장 등도 옛날 것 그대로다.

“공간 재생의 과정은 재생할 것과 버릴 것 사이 치열한 고민의 연속이다.” 최 대표는 “여행이 발달하면서 오래된 것의 관광 효과가 두드러지고 너도나도 옛날 것을 고치기 시작했다”며 “다만 옛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듯 공간 재생도 진정성이 없으면 오래 못 간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통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창의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에게 현대와 과거의 서울을 보여줄 공간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공간의 시작이었다. 설화수의 집은 열린 공간이다. 최욱 대표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현대와 과거의 서울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곳의 지리적 위치도 절묘하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서울의 배꼽에 해당하는 가회동은 서울 사대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장소다. 실제로 건물 옥상에 올라보면 두 궁과 사대문, 성곽, 산이 다 보인다고 한다. 또한 실내 공간만 둘러보아도 어디에서나 바깥 풍경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방감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최욱 대표는 “밖의 풍경을 실내로 들여와 자연스럽게 즐긴다는 우리 전통 가옥의 미감을 담았다”며 “이곳에 와 어쩐지 편안함을 느낀다면 한국적인 정서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화수의 집에서 우리 공간의 미감을 느껴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순신에게 배우는 자기경영 리더십

인문학칼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의 삶을 들여다보면 길이 보인다. 그들이 지나 온 발자취에는 우리의 삶을 운터하게 해줄 지혜가 켜켜이 쌓여 있다.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칠천량 해전 패전 후 육군에 편입해 싸우라는 선조와 조정 대신들을 설득하고, 필사즉생(必死則生) 필생즉사(必生則死)의 각오로 병사들을 독려해 불가능에 가까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사보신문>에서는 창립 75주년을 맞아 그의 청년기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세와 리더십의 근본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글=김윤태 체인지(體認知)컨설팅 대표

정통 문신 집안 출신, 무신의 길을 가다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무신 출신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의 이름 뒤에는 늘 장군이란 직책이 따라다닌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순신이란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장군이었던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정통 문신 집안이었다. 이순신의 증조부 이거(李擧)는 성종 때 세자(연산군)의 강관(講官)이었고, 성종과 연산 두 대에 걸쳐 대관을 지냈다.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임금과 세자를 가르치는 직책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대에 인정받는 학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의 조부 이백록(李百祿)과 아버지 이정(李貞)은 벼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때부터 그의 가문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고, 16세에 한양 생활을 접고 충남 아산으로 내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집안이 유서 깊은 집안이라는 건 변함없다. 『초계 변씨 별급문기』(재산 증여할 때 쓰는 문서)를 보면 이순신이 1576년 무과에 급제했을 당시, 어머니 변씨가 이를 축하하면서 그와 형제들에게 토지, 노비 등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순신의 처가 역시 매우 부유했다. 장인인 보성군수 방진은 재산이 많았는데, 외동딸인 아내 방씨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문신 집안에 재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는 왜 무신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무신보다는 문신이 우대를 받았던 상황이었다.

이순신도 처음에는 문과를 준비했다. 『난중일기』나 여러 편 시들을 보면 학문의 깊이나 문학적 재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직후인 22세 되던 해부터 책과 붓을 내려놓고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1576년 무과에 급제한다. 사실 그는 일찍부터 무관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李芬)이 지은 『충무공행록(忠武公行錄)』을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아이들과 항상 전쟁놀이를 할 때마다 대장을 맡았고, 언제나 활과 화살을 차고 다니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보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활을 겨누 쏘려고 했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를 두려워했다는 뒷이야기가 나온다.

이순신은 무인으로서의 완력도 보통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공이 선영에 성묘하러 갔을 때 무덤 앞에 세운 석상이 쓰러진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 명의 하인이 세우지 못했지만 그가 혼자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선조실록』에 류성룡이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아서 잘 아는데 이순신은 장수 될 자질을 가진 이”라고 조정에 천거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위대한 리더십의 원천, 자신의 ‘본모습’을 찾는 것

어리석은 자는 학문을 숭배하지만 현명한 자는 학문을 이용한다.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했던 시대였지만, 이순신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무인의 길로 들어섰다. 문관으로서의 재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관으로서의 재능을 더 즐겨워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 같다.

위대한 리더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HBS)의 리더십 전문가 스콧 스눅 교수는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명확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구성원들과의 신뢰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골자다.

진정성 리더십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자기 인식’이다. 나는 누구이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찾는 등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둘째는 ‘상황 인식’이다. 자기 인식을 조직 차원의 인식으로 한 단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조직 내에서 나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조직과 구성원들이 나를 언제 필요로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찾고 정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명확한 자아 인식이 되어 조직 내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자기 조정’으로, 자아 인식과 상황 인식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역할과 리더십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조직 차원에서의 중요 가치를 잘 조율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이순신 장군은 일찍부터 진정한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립했다.

당신의 ‘업무’와 ‘임무’는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리더는 조직 내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세울 수 있다. 정체성은 한마디로 ‘나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 왜 하는가?’를 의미한다. 이것을 깨달으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조직 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업무’와 ‘임무’이다.

직장인들에게 불시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대부분 당황한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임무는 ‘내가 조직 안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업부의 임무는 ‘회사의 매출 증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다. 그렇다면 업무는 무엇일까?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매일 하는 행위이며, ‘매뉴얼로 정리할 수 있는 일’로 정의된다. 거래처를 관리하고, 매장의 상품을 관리하고, 시장 상황을 관찰하고,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행위 말이다. 당신이 그 업무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임무가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본부장 비서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씨의 업무와 임무는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업무와 임무의 차이예시

업무의 내용(A)	업무의 본질(B)	임무(C)
방문객 관리	업무방해 요소 제거, 근무환경 관리	경영자가 본인의 경영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간/시간/정서적으로 돕는 행위
정리, 요약 대행	상사의 시간 절약, 핵심 이슈 제공	
스케줄 관리	효율적 시간 관리	
다과 준비	상사와 고객의 만족, 편안함 제공	

자신의 업무와 임무의 구분이 어렵다면 위의 내용과 같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고(A), 업무별로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나열한 다음(B), 마지막으로 개별 이유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하나의 이유(C)를 넣으면 된다.

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비법

우리는 임무를 이루기 위해 업무라는 과정을 수행한다. 조직에서 맡은 업무가 있고, 각각의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당신의 임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에 임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된다. 똑똑하다는 칭찬은 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이 아닌, 개인의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도 미션을 명확히 이해해야 방향을 정확히 잡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

이순신은 일찍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고, 그것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임무와 업무를 정립한 후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나갔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임무를 체계화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즉 임무를 모르고 업무만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은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게 된다. 매뉴얼엔 생각이나 창의가 개입할 여유가 없다.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저 친구 똑똑하군!” “저 친구 일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부터 탐구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순신 장군을 매뉴얼을 철저히 지킨 원칙주의자로 인식한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조직과 구성원 개개인을 살리는 것이었다.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사람을 대할 때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임금에게 수난을 당했음지언정 그를 따르는 부하장수와 백성들은 구름떼와 같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 자그놀리
특별전:
Life is Color



뉴욕이 사랑한 글로벌 일러스트레이터 올림피아 자그놀리의 특별 전시가 오는 5월 27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다. 특유의 장난스러운 느낌의 삽화 디자인에서부터 매거진 <The New Yorker>의 표지나 프라다, 디올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한 삽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하며 대세 일러스트레이터로 자리 잡은 올림피아 자그놀리.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담한 스타일과 풍부한 색채를 사용한 작품을 볼 수 있다.

<Life is Color> 전시는 1970~80년대 급진적인 이탈리아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부터 상상 속 인물을 그린 초상화, 주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까지 총 11개 섹션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디자인 오브제, 키네틱 조각, 비디오 클립 등 그의 다채로운 150여 점의 작품과 네온, 세라믹, 나무, 플렉시글래스 조소를 사용해 3D 공간으로 확장한 작품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점은 패션 브랜드 디올의 2020 가을 컬렉션을 표현한 'Changing Room'과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Kiss'가 공개되기 때문. 올림피아 자그놀리만의 밝고 긍정적인 카멜레온과 같은 형형색색의 유쾌한 메시지를 보고 싶을 관객들에게 추천한다.



Olivia Gagnoli

3 Illustration for a coffee tin, Illy(2020), 4 "Summer Girl" for LOTTE(2021), 5 "Burst into bloom" for The New York Times(2020).



1 Caleidoscopica(2020), 2 Illustration on young people and technology for Italian newspaper La Repubblica(2016).

2022. 5. 27(금)~10.1(토)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5